

“노랗게 물든 지리산자락에서 봄 만끽하세요”

제26회 구례산수유꽃축제 개최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
3월15일 풍년기원제 등 개막식
환경부·전남도 협업 친환경축제

지리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이는 산수유꽃과 함께 펼쳐지는 제26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오는 3월15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구례산수유꽃축제는 방문객 편의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친환경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군은 산수유꽃을 특화한 5개 부문 24

개 종목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지역민 소득 증대를 위해 음식점과 판매 장터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는 오는 3월15일 오전 10시 시목지에서 열리는 풍년기원제로 시작된다. 같은 날 오후 6시 행사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가수 임창정, 나태주, 장예주, 이정옥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산수유열매까지 대회 △산수유꽃길 걷기 △어린이 활쏘기 △세계 전통놀이 체험 등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어린이 활쏘기와 세계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다시 열려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 가수들의 버스킹 공연과 국가무형문화재 농악 한마당이 축제

장 곳곳에서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전망이다.

올해는 구례군과 환경부, 전남도가 협업해 친환경축제를 개최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군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 행사장 내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틀버스를 2개 코스에서 운영하며,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다. 캠핑카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관산운동장(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0)에 별도의 캠핑카존을 조성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를 찾는 방문객들이 봄의 전령사 산수유꽃을 만나 영원한 사랑의 기운을 듬뿍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수유꽃축제에 이어 오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서시천체육공원 및 문척면 일원에서 구례300리 벚꽃축제가 ‘구례 벚꽃로드 129km, 꽃길 속으로 떠나는 로맨틱 여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외에도 3월1일부터 10일까지는 제24회 대한민국 압화대전 공모가 치러지며 3월10일부터 30일간은 화엄사 화엄매 사진 콘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순천시, 내달 7일까지 모집

순천시는 19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원하는 업소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1:1 맞춤형 컨설팅’ 희망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되면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 외 출입·검사 면제, 상수도 사용료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시는 위생등급제 지정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전문 컨설팅 업체의 방문을 통해 위생실태 파악과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분야별 평가 항목 점검 등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총 16개소로 선착순 모집이며, 선정업소에 대해 3월부터 위생등급제 컨설팅이 시작되고 비용은 전액 무료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3월7일까지 순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탄소중립 실천가 50명 양성교육
광양시, 내달26일부터 6회 과정

광양시와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광양시민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26일부터 4월30일까지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및 현장에서 총 6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이론 교육과 현장 견학을 병행하며, 기후변화의 이해, 광양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녹색생활 실천 방법, 플라스틱 제로 운동, 탄소중립 실천가의 역할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은 탄소중립 실천가로서 광양시 환경교육, 기후변화 대응 홍보,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환경 교실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내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교육 신청은 전화(061-791-4554), 팩스(061-792-4554)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누리집(https://gwangya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양시와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00명의 탄소중립 실천가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지내에까지 1792명의 실천가를 배출했으며 올해 교육을 통해 5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종이 없는 간부회의” 도입
탄소중립·스마트 행정 혁신 실천

보성군이 올해부터 ‘종이 없는 간부회의’를 전면 도입하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행정 혁신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지난해 상반기 보성군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종이 없는 회의 및 용역 보고로 탄소중립 실천’에서 출발해 올해 신규 시책 ‘종이 없는 간부회의’로 본격 추진됐다.

군은 기존의 종이 문서 기반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태블릿 PC를 활용한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회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공유·검토한다.

이를 통해 연간 수천 장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인쇄 및 문서 보관 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성=양종수 기자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광양시, 1인 최대 2000만원

광양시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빈 점포 활용 청년사업가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청년 5명을 선정하고 창업 초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와 임차료 등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18~45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거주 예정자는 최종 청년사업가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창업 분야는 금융, 유흥업, 사행업 등을 제외한 제조·기술창업, 지식·일반 창업 등 전 분야다.

다만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세금 체납자,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광양수산물유통센터(광양시 향남9로 69) 입점 시 가점을 부여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돌봄농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업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농촌 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최다’ 선정

돌봄농장 2개소·공동체 1개소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5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국 최다인 3개소가 신규 선정돼 국비 77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농촌지역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순천시는 농촌돌봄농장 2개소와 농촌주민생

활돌봄공동체 1개소가 선정됐다.

새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은 송광면 덕동영 영농조합법인과 도사동 농협회사법인 ㈜에스펠리어로, 이들 농장은 사업 첫해인 올해는 2500만원을 지원받고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5년 동안 총 2억 45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 신규 선정된 별량면 전나무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50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후 매년 평가를 통해 5년 동안 총 3억2600

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된 사업비는 강사료 및 인건비, 재료비, 시설사용료, 홍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안전·휴식 시설 등을 설치·개보수 할 수 있는 시설비로 활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농촌돌봄농장으로 선발된 모이라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3개소의 농촌돌봄농장과 1개소의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를 보유하고 됐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아이디어·답례품 공모

3월31일까지... 최우수 30만원
답례품업체 3월10일까지 모집

장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 3년 차를 맞아 장흥만의 특색있고 가치 있는 곳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접수된 아이디어는 오는 4월 중 기금사업 적정성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최종 선정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우수상 30만원(1명), 우수상 20만원(2명), 장려상 10만원(3명)이 지급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군은 오는 3월1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장흥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선정된 물품을 생산, 제조, 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 공모 분야는 △농·축·수산물과 식품 △공예·공산품 △관광 서비스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군 총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오는 3월 중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4월 말부터 1년간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담긴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은 군민이 만족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의미 있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또 장흥군에 마음을 보내주시는 기부자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답례품 다양화를 통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